

■ 학습 목표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영상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준비물

- 교사: 교과서, 참고 작품(멀티미디어 관련 현대 미술 참고 사례) 등
- 학생: 교과서

■ 창의·인성 키우기의 주안점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멀티미디어 영상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 자유로운 주제 선정과 화면 구성 및 새로운 영상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학습 전개 PPT 요점 정리 관련 사이트 동영상 활동지 3 지도서 276쪽

단계	주요 활동	참고 사항/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의 개념과 종류, 구성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 영상 작품과 유튜브를 감상하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상과 효과에 대해 이해한다. • 멀티미디어 영상 스토리 구성 방법에 대해 이해하며 동기 유발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영상 표현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p><멀티미디어 영상 제작 과정> 모듬 편성 → 계획 설정 → 정보 수집 → 콘셉트 설정 → 영상 분석 → 영상 구상 → 영상 작업 → 영상 편집 → 영상 완성 → 영상 시사회 → 종합 토의</p> <p><멀티미디어 영상 제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 편성을 위한 토의를 한다(성격, 능력, 특성 등을 고려). • 모듬별로 영상 제작 월별 계획서(스케줄)를 작성한다. • 제작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의 주제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기승전결을 바탕으로 스토리 보드 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스토리의 구성과 장면의 주요 이미지, 등장인물, 주변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 스토리 보드를 기준으로 캐릭터와 배경을 제작한다. • 비디오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영상을 촬영한다. • 촬영을 모두 마치면 스토리에 맞추어 편집하여 영상을 완성한다. • 모듬별로 완성된 영상을 시사회를 통해 발표하고 서로의 장단점 등 의견을 교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 편성 시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형식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주제에 맞도록 형식을 선정,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작품의 의도와 방향에 따라 개성 있는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한다.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영상을 모듬별로 협동해서 제작하여 문제 해결력을 함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고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평가 항목			
	주제 표현	화면 구성	표현력	창의·인성
	주제에 맞게 멀티미디어 영상 제작 방법을 선정하였는가?	기승전결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주제에 맞게 배경, 캐릭터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제작하였는가?	새로운 영상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나타냈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자유로운 주제의 선정과 화면 구성을 통해 흥미와 영상 표현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결과에 대한 추리와 평가를 함으로써 스스로 학습에 대한 의욕과 감정 이입을 통한 자기 주도적 사고를 기른다.

테크놀로지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미술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움직이는 전자 회화'라 불리는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텔레비전 등을 표현 매체로 하는 예술로, 이러한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였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음향, 영상 매체 등을 사용하여 미술의 영역을 확장했으며,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이미지가 생산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하였다.



백남준(1932~2006/한국→미국) 요셉 보이스(265×188×95cm/1990년 작) - 빌트. 음향과 시각의 조화를 통해 있는 전자 회화 실험 또는 전자 회화 실험의 제1인자 요셉 보이스(Joseph Boiss)를 뜻한다.



1965 → 1971 → 1974 → 1990



1. 자석 TV(17인치 흑백 텔레비전과 자석, 무성/72.1×48.9×62.2cm/1965년 작) -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거울과 대안 화면의 영상에 반사가 일어나서 2개의 화면이 동시에 보이게 하는 시너지다. 무전선과 시간정체를 시공로 전환에 기여하여 완성되었다.
2. TV 안경을 끼고 TV 첼로를 연주하는 무어만(행위 미술/1971년 작) - 첼로 연주자인 무어만이 첼로를 첼로로 삼고 첼로로 첼로를 연주하는 행위를 시연하고 연주 소리에 따라 영상이 달라진다.
3. TV 부처(철도, 조각, 모니터,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한 페쇄 회로 비디오 설치/1974년 작) - TV 부처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로 동시성 의 문화를 결합하고자 하였다. 페쇄 회로 칩을 통해 카메라로 부처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하여 텔레비전으로 보게 하는 장치의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영상을 비추는 장치이다.
4. 사운드스케이프 시리즈 - 백남준이 이 작품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투영시키면서 발전시킨다.

'내온 TV' 시리즈 작업실에 남아 있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며, 다른 큰 작품을 만들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 또 다른 작품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내온 TV' 시리즈를 잘 제작하였다.



철사-타타르 180×180×23cm/1990년 작 | 콘서트주의의 음향 67×62×23cm/1990년 작 | 부처 68×64×25cm/1990년 작 | 사운드 90.0000Hz 80×140×25cm/1990년 작 | 22세기 여왕 83×48×25cm/1990년 작

1980년 '무로넬 카스트 오브', 1980년 '비비비 키틀링', 1988년 '손에 손 잡고' 등의 위성 상투작은 텔레비전 방송,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가 결합되고, 예술과 유희, 미술과 음악, 스포츠가 혼재하는 멀티미디어 축전이었다. 이 축전은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전 세계인이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백남준은 '미술은 미술가 혼자서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체의 행위와 동작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 그는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여 완성되는 작품 등 빛과 공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였다.



백남준 작품을 관람하는 모습

5. 무어만 교차(1991년 작) - 백남준은 이 작품을 통해 두 명의 소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한 명은 그가 음악과 제 음악 인생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무어만 교차(Moerhans Capella)'로, 한 제자는 백남준의 예술에 영감을 준 인물로 여겨졌으며, 개념적 안 거울을 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 로버트(1962년 작) -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은 매우 혁신적인 예술의 형태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7. 비디오 스펙트럼(텔레비전 모니터, 비디오 카메라/180×195×195.6cm/1964년 작) - 오로라(1964년)와 같은 스펙트럼(1962년) 및 비디오에 결합된 비디오 조각 작품이다. 부처에 관한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도교의 도교(1962년) 시리즈의 영상을 한 텔레비전 모니터가 스펙트럼을 타고 달린다.
8. 로버트는 살아(1960년 작) - 로버트 무어만의 작품 '로버트'의 음향용 비디오를 통해 보여 준다.



1991 → 1992 → 1994 → 2000

장예상장에서 펼쳐진 비디오 퍼포먼스

백남준은 2012년 제 11회 서울 비엔날레 100주년 기념하여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백남준은 2000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식장은 죽은 자가 관여한 새로운 장례 문화로 탄생시켰다. 장례 의식은 예느 장례식처럼 숙연하게 진행되었다. 시회를 보던 백남준의 조카 하쿠마 쉐인(白田雄)이 고인을 위해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고 제언하였다. 조문객들은 영혼을 문은 채 서로 영감을 쳐다 보았다. 하쿠마 쉐인은 열 사람의 베타를 잘라 권 속에 넣어 담그고 고고, 운반, 웃음이 터져 나오면서 무가했던 식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문객들은 베타를 잘라 백남준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럭셔리(Luxus) 1960~1970년대에 미국과 독일에 시 전격적 국제적인 전시 예술 운동이다. '덜의 예술' 조류의 대표로 등장한 럭셔리스 운동은 음악과 시각 예술, 시와 무대 예술 등 다양한 행위 예술을 시도하였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교과서 149쪽

있는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고, 직업의 모습과 다양한 직업의 종류, 직업의 가치 등의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진로를 체험하거나 퀴즈를 풀면서 관심 직업이나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첨단 과학을 활용한 체험 시설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을 준다.

- **우리 몸은 어떻게?**(경기도 어린이 박물관/2011년 개관)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박물관은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어린이들에게 자기 주도적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 **낙동강 음악 분수**(설치/둘레 30m, 높이 30m/2009년 개관/한국) '낙동강 음악 분수'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높이 10m까지 시원하게 뿜어 내는 물줄기가 직선과 곡선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색상과 형태를 가진 레이저 쇼가 조화를 이루며 환상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교과서 150~151쪽

- **백남준**(1932~2006/한국→미국) **요셉 보이스**(265×188×95cm/1990년 작) 독일 예술가 요셉 보이스는 조각, 드로잉, 설치 미술, 행위 예술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요셉 보이스는 타타르 족의 동물의 지방과 펠트 천으로 그를 치료하였는데, 이는 후에 그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된다.

생명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지방, 에너지를 보존하여 따뜻한 을 지닌 펠트를 이용하여 예술로서 개인적,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였다. 우연한 기회로 만난 요셉 보이스와 백남준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술 활동을 하였다. 백남준은 요셉 보이스를 의미하는 요소와 텔레비전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요셉 보이스를 형상화하였다.

- **자석 TV**(17인치 흑백 텔레비전과 자석, 무성/72.1×48.9×62.2cm/1965년 작) 자석 TV는 관객들이 외부에 매달아 놓은 자석을 움직일 때마다 전자 시그널의 이미지가 방해를 받도록 회로를 변경해 놓은 것이다. 백남준의 의도대로 관객의 참여로 인해 추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패턴이 텔레비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써 간단한 원리로 화면을 조작하여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내는 비디오 아트의 미래를 예언하는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 **TV 안경을 끼고 TV 첼로를 연주하는 무어만**(행위 미술/1971년 작) 첼리스트 무어만을 위한 작품이다. 플래시 글라스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첼로 3대로 구성되었다. 'TV 첼로'의 수상기는 비디오테이프, 생중계되는 폐쇄 회로 비디오, 그리고 TV 영상을 보여 주며, 때로는 첼로 현과 연결되어 이미지와 전자 음향 사이의 상호작용을 창출하기도 한다. 무어만은 1973년 백남준의 이 비디오 작품을 일컬어 "1600년 이래 첼로 최초의 진보"라고 말하였다.
- **TV 부처**(철도, 조각, 모니터,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한 폐쇄 회로 비디오 설치/1974년 작) 이 작품은 텔레비전 뒤에 놓인 카메라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

을 모니터를 통해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는 부처가 주된 모티프이다. 1974년 쾰른 현대 미술관의 퍼포먼스에서는 백남준이 범의를 걸치고 부처 대신 등장하기도 하였다. 폐쇄 회로로 인해 카메라와 모니터의 긴장된 관계가 설정되고, 직접적이고 단순하며 강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양의 과학 기술과 동양의 명상 세계가 접목된 이 작품에서 심오한 명상의 세계마저 테크놀로지로 재현될 수 있으며, 차가운 테크놀로지가 인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시리우스(1990년 작)

시리우스(Sirius)는 큰개자리에서 으뜸가는 별, 하늘에서 보이는 항성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다. 백남준은 이 작품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자신의 아이콘을 적응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갔다.

● 두 명의 교사(1991년 작)

백남준은 이 작품을 통해 두 명의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한 명은 그의 경기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던 신재덕(申載德, 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 대학 학장, 1989년 작고)이었는데, 선생은 백남준에게 피아노뿐 아니라 작곡과 성악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였다.

다른 한 명은 존 케이지(John Cage/1912~1992/미국)로서 1958년 그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예술 인생은 큰 전환을 이루게 된다. 케이지는 서양 음악의 옥타브라는 제한된 음가(音價)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가 내는 소리만을 음악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고정 관념에 대하여 반기를 든 가장 적극적인 음악가이다. 그는 백남준의 예술에 정신적 영감을 제공하였으며, 개념적인 기초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동대문(1992년 작)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은 매우 혁신적인 예술의 형태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백남준의 설치 작업은 영상 이미지의 창조와 수상기의 조각적 구성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백남준이 장치한 TV는 주로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경시켜 방송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브라운관을 조작하여 스크린에 추상적 선묘를 창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비디오 스쿠터(텔레비전 모니터, 라디오 케이스/182×195.6×195.6cm/1994년 작)

스쿠터를 의인화한 '비디오 스쿠터'는 실제 스쿠터와 20개의 TV를 결합하여 만든 비디오 조각이다. 바닥에 놓인 TV 화면에서는 도로 이미지가 송출된다. 살아 있는 수탉과 오토바이를 무대 위에 등장시켜 생음악을 연주했던 초기 행위 음악의 비디오 아트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자 음악을 전자 비전으로 확장시킨 백남준의 태동을 감지할 수 있다.

● 호랑이는 살아 있다(2000년 작)

이 작품은 높이 567cm의 첼로와 577cm의 월금(月琴: 비파 모양의 악기)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 57개를

통해 호랑이의 기상과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호랑이는 살아 있다(Tiger lives)'는 한반도에서 분단국으로 살아가는 남북의 사람들은 아직도 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1999년 12월 31일 자정부터 2000년 1월 1일 위성 아트로 선보였다. 만담 속의 호랑이는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도 많지만 친근한 동물이기도 하다.

● '네온 TV' 시리즈

'네온 TV' 연작은 소품이지만 백남준의 예술 철학이 돋보인다. 그가 늘 주장하는 예술의 인간화, 기계의 생명화 정신을 엿볼 수 있다.

- 접시=안테나(60×60×25cm/1990년 작)
- 공산주의의 종말(57×62×23cm/1990년 작)
- 버튼(58×64×25cm/1990년 작)
- 사랑은 10,000마일(60×60×25cm/1990년 작)
- 22세기 여우(63×65×25cm/1990년 작)

참고 사항 및 관련 자료

플럭서스

플럭서스(fluxus)란 1960~1970년대에 미국과 독일에서 전개된 국제적인 전위 예술 운동으로,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마키우나스, 히긴스, 케이지, 보이스, 클록, 백남준 등이 있다. 플럭서스는 미술에서 출발하였으나, 곧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음악과 시각 예술, 시와 무대 예술 등 탈장르적인 예술로 발전하였다.

표현 방식은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많은 미술 형식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회화적이면서도 개방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후에 플럭서스 운동은 메일 아트(mail art), 개념 미술(conceptual art), 포스트모더니즘, 행위 예술 등 현대 예술 사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비디오 예술

비디오 예술(video art)이란 비디오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영상 예술로, 현대 미술의 한 경향을 말한다. 조형 표현의 활동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그것을 영상으로 발표함으로써 작가의 조형 활동의 과정을 전달하려는 방식으로 1970년대에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의 매체인 비디오는 무엇보다도 신체 미술이나 퍼포먼스에서 제스처를 강조하거나 변화 과정을 보여 주려는 예술가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디오 아트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널리 보편화된 TV를 이용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주로 스토리가 없고 짧은 이 비디오테이프들은 공중파로 방송되거나 VCR를 통해 재생되었다.